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비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 지구적 전염병'으로 선언할 정도로 개인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비만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만 치료와 예방에 힘쓰고 있다.

다행히 OECD 국민의료비 통계(OECD 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은 31.8%로 이웃한 일본(23.7%)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년간(2002~2013)의 일반건강검진 자료를

젊은층 고도비만 급증, 적극적 해결방안 필요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20~30대 젊은 층의 고도 또는 초고도 비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젊은 층의 고도비만 증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전문가들은 1980년대부터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한 패스트푸드의 소비 증가와 자동차 중심의 비활동적 생활습관에 따른 신체 활동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현 추세대로 20~30대 젊은 층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머지않아 국가의 큰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비만 문제를 먼저 경향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교훈삼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젊은 층의 주요 비만 원인이 되고 있는 패스트푸드 등에 의한 불균형적 영양 섭취와 자동차 중심의 비활동적 생활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른바 'Health in All Policies(HiAP)' 개념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공공정책은 비만과 같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다. 탄산음료를 만드는 세계 최대 음료업체는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 교육, 물관리, 공동체 재할용 등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원을 위해 많은 재원을 기부하고 있다.

미국의 한 건강의료포 업체는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을 설립하여 미국인들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ctive Living Research 사업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기업의 사례처럼, 국민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보행, 자전거 타

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 중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사업이나 환경조성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면 어떨까 한다.

20대 젊은 세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도 학생들의 비만과 건강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캠퍼스 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거나 보행 전용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급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졸업기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 능력, 예를 들어 수영을 1km 이상 할 수 있는가를 포함한다면 어떨까? 농담 삼아 질문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30대 젊은 세대들의 비만을 증가는 단지 스쳐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는 우리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칼럼



신삼식
광주 뉴티스맑은피부과 원장

현대인들은 문신을 하나의 패션으로 생각한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문신을 하면서 젊은 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끄는 등 문신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비전문적인 불법 문신 시술소 또한 성업하고 있다. 몸에 새긴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시술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색소가 빠지며 오히려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보여 문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함께 늘고 있어 이중적인 현상을

문신의 두 얼굴

보고 있다.

문신은 영원히 변치말자는 각오를 몸에 새기는 행위이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얼마나 될까? 특히 젊은 날의 각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서서히 변하게 마련이다. 특히 결혼을 앞두거나 취직을 앞두고는 후회가 밀려온다. 특히 자식을 낳았을 때는 부모된 마음에 자식에게 보여주기가 꺼려진다고 한다.

여기에 비 의료인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로 문신제거 시술을 받는다면 피부조직의 손상이나 알레르기 반응,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청결이나 안전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신을 제거할 때도 가격적인 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확인한 후에 문신을 제거해야 한다.

문신의 경우, 몸에 새길 때보다 제거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시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비싼 제거 비용으로 인해서 피부전문인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저렴한 곳을 찾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피부에 흉터나 피부 감염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의료법으로는 문신은 병원 이외에서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법의 적용이 엄격하지 않아서 불법시술이 성행하고 있다. 국민 보건차원에서 본다면 의료기관 내에서 문신시술자를 교육하고 관리 감독해 시술한다면 감염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좀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술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신제거를 위한 현실적인 시술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거가 가능한 피코슈어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피코슈어레이저는 기존의 문신 제거에 이용된 레이저 시술보다 더욱 빠

르고 강한 에너지를 피부에 조사함으로써 문신색소 파괴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피코슈어레이저 방식은 기존 나노세컨드타입의 레이저보다 100배 빠른 피코세컨드를 레이저에 적용, 강하고 빠르게 피부 내에 레이저 조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빠르고 강한 에너지로 타겟을 더 잘게 부수어 림프관으로의 배출이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존 레이저에 비해 절반 정도의 시술로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연히 시술시 따르는 고통이나 시간, 경제적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현재는 문신 제거가 한결 쉬워졌다. 아이라인,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과 칼라문신 제거도 어렵지만은 않다. 그러나 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개개인의 피부상태에 따라서 레이저의 조사강도를 조절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며 또 전문 의료진을 찾아 문신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기고



송상락
전남도 기획실장

최근 호남지방 자치단체에 상생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뜻은 해당 자치단체의 일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90년대 이후 지방자치는 발전을 계속해 왔고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웃 자치단체와 경쟁하는 양상으로 운영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일을 하다 보면 산업 유치경쟁이나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공모로 하는 경우 경쟁은 불가피한 점도 있다. 이러한

광주·전남 발전, 경쟁보다 상생이 답이다

경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도민의 눈에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쟁으로 보이는 일도 많은 듯하다. 때로는 불필요한 경쟁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도민들은 시도가 협력하면 호남 전체가 모두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인데 과도한 경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빚어 타분야에서의 협력의 가능성마저도 좁히는 것이니하는 걱정을 한다.

광주와 전남은 고향도 서로 겹치고 입맛이나 말투도 같다.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의존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주전남은 한뿌리이고 공동운명체다. 이렇게 시도민의 의식 속에서는 광주와 전남을 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데 가끔 시·도가 경쟁을 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전체의 힘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지난 6.4 지방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지나친 갈등과 경쟁을 하기도하는 시·도간 상생협력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

는 효과가 있다면 경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쟁이 서로의 자원과 역량을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 진다면 이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양 시도지사는 광주전남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시도민들에게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의미도 있고, 시도간의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추어 상생협력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자는 것이

이다. 과거에도 우리 양 시도가 협력없이 경쟁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로써 나누어 조성한 빛가람 혁신도시를 들 수 있다. 당시 시도가 합의하에 임지를 선정했고 사업추진도 서로 분담해서 한 결과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사업진도가 가장 빠르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16개 정부 산하기관이 입주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8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올 연말까지 13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

곳의 조성사업이 우리지역에 가져온 효과보다 이들 기관과 관련된 사업,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가져올 고용과 기술, 성장과 발전이 훨씬 의미있고 기대된다는 것이다. 시도간의 기본적인 관계의 틀을 경쟁보다는 "상생과 협력"으로 정해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선 찾아보면 앞으로 많은 협력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4개 과제를 상생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논의 중에 있지만 이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개별 사업추진과정에 상호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도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합의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 의견이 다소 다르다고, 또는 논의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갈등으로 볼아 붙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시도간의 문제이지만 시도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이 협력의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도 힘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또 농기계 관련이나 농민 안전 등을 감안해 농기계 등록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농기계 등록제가 전제돼야 하는 농기계보험 의무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로주행이 잦은 경우나 콤팩트 트랙터도 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쌀 수입 전면 개방과 한중 FTA 체결 추진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이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또 농기계 관련이나 농민 안전 등을 감안해 농기계 등록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농기계 등록제가 전제돼야 하는 농기계보험 의무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로주행이 잦은 경우나 콤팩트 트랙터도 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쌀 수입 전면 개방과 한중 FTA 체결 추진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이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또 농기계 관련이나 농민 안전 등을 감안해 농기계 등록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농기계 등록제가 전제돼야 하는 농기계보험 의무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로주행이 잦은 경우나 콤팩트 트랙터도 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쌀 수입 전면 개방과 한중 FTA 체결 추진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社說

두 차례 고친 엘리베이터서 사망사고라니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졌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수없이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사고 아닌가.

광주시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 승강기 지하 통로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22일 밤. CCTV 확인 결과, 이 여성은 1층에서 승강기를 탄 뒤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던 중 갑자기 승강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통로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 역시 승강기 안전관리가 허술해 발생한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의 승강기는 지난 3월 20일 관련기관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움직인 점으로 미뤄 승강기 결면에 설치된 안전 센서가 오작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사고 당일까지 두 차례에 걸

친 검사를 마친 뒤 정상 가동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니 부실 점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은 사고 전날과 당일 22일 승강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아파트 맨 꼭대기인 22층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두 차례나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아파트 자체 점검의 경우 매월 한 차례 실시토록 돼 있다. 대부분 승강기 업체가 유지·관리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1000여 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허술한 점검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광주 지역만 해도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에 이른다. 엘리베이터 사용은 피할 수 없다. 평소 승강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조그만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즉각 보수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규 지키지 않는 경찰차 누가 단속하나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관리해야 할 경찰차량이 속도 및 신호 위반 등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차가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내놓은 '올 상반기(1~6월) 경찰차량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모두 174건을 위반해 전국 16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은 지난해에도 313건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광주지방경찰청도 같은 기간 72건(4.06%)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경찰청을 지난해 88건이 적발됐지만 금년에 위반한 건수가 6개월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적발 건수가 용의자

추격과 긴급사고 발생 등 업무로 인한 위반이 아니라 무단단속기에 찍힌 수치라는 점이다. 특히 광주·전남경찰이 위반한 사례 중 속도와 신호 위반이 98% 이상을 차지해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지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속도·신호 위반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차는 긴급 상황에 따라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단카메라에 버젓이 찍힐 정도라면 그 자체로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야기다. 경찰차량이니 안하무인 격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직권남용이나 다를 바 없다.

광주·전남경찰은 경찰차 위반을 가벌계 여겨서는 안 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규 무시는 계속될 것이고,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운전자에 대해선 엄히 문책을 해야 하며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

無 等 鼓

요즘은 여기저기 꽃무릇이 한창이다. 서로 보고 싶어도 잎새와 꽃이 갈래만 날 수 없는 꽃. 그대 이름도 상사화(相思花). 물론 상사화는 조금 더 연분홍빛이 들고 꽃무릇은 진한 주황색이지만 사람들은 꽃이 구별하지 않는다.

가녀린 초록색 꽃대 위에 위태롭게 빨간 왕관을 얹은 아름다운 자태. 그 붉은 꽃에 얽힌 전설이 애절하다. 사랑에 빠진 오누이가 있었다. 결국 누이는 꽃으로, 동생은 잎으로 태어나야 했다.

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 절 주변에 많이 심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사화의 뿌리에 독성이 있고 썩어 슬지 않도록 하는 방부성이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을 그린 탕화에 상사화즙을 바르면 상하지 않는다. 번뇌도 쫓고 독충도 쫓고 탕화의 부식도 방지하고.

출근길, 비가 내린다. 금파공고 언덕 위에 한 무리의 꽃무릇이 붉은 용단을 깔아 놓았다. 하지만 비에 젖은 꽃무릇이 오늘따라 왠지 처량하게 보인다. 애절한 전설이여 너무 억울한 것이고 아무래도 가을 탓이 아닌가 싶다.

/이희재 논설교

는 'ㄱ'이 탈락하는 예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물개)물개)모래(沙, 놀개)놀이)노래(歌) 등등.)

영광 불갑사, 고창 선운사, 함평의 용천사. 꽃무릇은 대개 절 주변에 많다. 왜 그럴까. 부현 스님의 설명이 꽤 그럴듯하다.

첫 번째 이유는 불교적인 교리가 배어 있다는 것이다. 번뇌와 깨달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번뇌가 없어져야 드러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명쾌 영원히 만날 수 없다

아무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다른 이야기도 있

다. 한 스님이 아주 예쁜 젊은 처자를 짝사랑했다. 매일매일 애크 태우다 스님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문헌 무덤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다.

꽃무릇은 이름도 아름답다. '무릇'의 뜻을 가능하기는 어렵다. 다만 '무릇'이라는 식물의 사투리인 '물국'(물+국)에서 그 어원을 짐작해 본다. '물'은 물(水)이고 '국'은 구석이란 뜻이다. 물기가 많은 곳이나 담장 구석진 곳에서 자라는 습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물국)물국)무릇의 변화. 우리말에서 '르' 다음에 오

농기계보험 가입률 높일 지원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명보다 월등히 많다. 그 중에서도 유독 농축어업 종사 비율이 높은 광주·전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7배나 높다고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낮다하면 치명적인 인명도 많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08년부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했다니 농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0.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1.5%)보다 7배 높았다. 주로 노인들이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농기계를 모는데다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사망률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농기계 교통사고 보험가입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운기와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등은 농

기계이면서도 실제 농촌지역에선 농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 동안 등록된 농기계 대수는 10% 줄었는데 1만대 당 사망자수는 오히려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차량대수(농기계 포함)는 10.8% 증가했지만 1만대 당 사망자가 17.1%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농기계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기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바꾸면 영세농 등 농민들의 반발이 있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문·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 화 생 활 부 2200-661 여 문 배 제 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광 고 매 경 팀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 로젝트 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